



돼지질병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과 개선사항

돼지가격이 몇 년만에 지육 kg당 4천원을 넘어서는 등 최고가격을 형성할 만큼 질병의 피해가 컸던 2003, 2004년이였다. 질병이 돈가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10% 정도의 농가만이 돈을 벌고, 40% 정도는 본전이고, 50%는 돼지가 많이 죽어서 적자에 허덕였을거라는 얘기들이 있었다. 금년에도 PMWS를 비롯하여 많은 질병들이 만만치않게 농가소득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걱정이다.

전체 양돈업계 차원과 농가 차원에서 골치아픈 질병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에서 해야 할 일들도 있지만, 양돈업계와 농가들이 해야 할 일이 더욱 많다. 결국 피해는 농가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농가가 적극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고민스럽게도 100% 치료약은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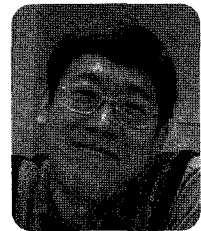
1. 정부는 돼지질병 차단을 위한 실제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농가단위에서는 연구나 진단,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하기가 기술적으로, 비용면으로도 불가능하다. 농가에서는 개발되어 표준화된 기술을 이용할 뿐이지,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기술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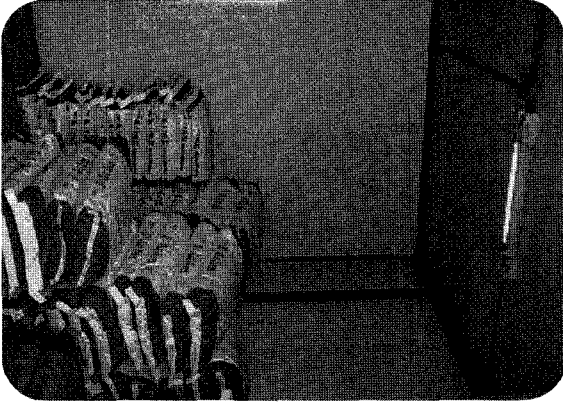
가. 현장관련 기술의 연구기관 필요

백신과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검역원을 비롯한 몇 기관들이 있다. 그렇지만 농장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질병에 대하여 사양관리와 연결된 체감되는 기술을 연구하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예를 들면 PMWS가 문제되는 농장이라면 소독은 어떻게 하고, 사료관



정 현 규 상무
도드람양돈농협



▲ 사료창고 자외선등 소독 장면

리와 환경관리는 어떻게 하고, 시설은 어떻게 하고 등 실제 농가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곳은 기존의 연구소와는 달리 정부가 지원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면 훨씬 효율적일거다. 지난해에 양돈협회 차원에서 일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계속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

나. 질병 진단문제의 효율화

검역원, 시험소, 대학, 제약회사 등에서 질병 진단을 하고 있다. 잘 하고 있지만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첫 번째는 신속성, 현실성이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는 진단센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금요일 오후부터 3일간은 질병이 발생해도 검사를 맡기기가 어렵다. 한번 맡기면 혈청검사에 2~3주가 걸리고, 간단한 질병이라도 1주는 걸린다. 아마 비용 등의 문제로 여러 농장을 모으거나, 담당자가 출장을 가거나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권역별로 2~3군데는, 아니면 적어도 전국적으로 한군데만이라도 빨리빨리, 그리고 쉬지 않고 돌아가는 진단센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2. 조합, 양돈단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양돈단체는 직접 양돈가를 조합원, 회원으로 하여 사업을 벌이고 대변하는 양돈농가가 주체인 기관이다. 양돈농가가 없다면 양돈조합, 양돈협회 등은 필요 없는 기관들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한다. 물론 이런 일에는 단체의 직원들의 의식도 중요하게 포함된다.

가. 전문수의사 확보 및 효과적인 활용

양돈협회, 양돈조합에도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가 적은 경우를 본다. 그러다 보니 농가는 자연히 가까운 곳의 아무나를 찾게 된다. 적당히 알아서 약을 쓰게 되고, 이것저것 들은대로 치료를 해본다.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된다. 최근의 PMWS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로 생각된다.

전문인력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공동으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지역적으로 단체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있으니 용역, 계약, 공동 기술 자문회사를 만들어서 질병문제를 해결하는 대책과 기술지도를 해 볼 것을 고려해야 할 때다.

전문인력은 돈을 좀 더 투자하면, 전문가 대접을 받을 수 있으면 모이게 되어 있다. 질병문제만을 생각한다면 1년에 10억쯤 투자해서 전문가 4~5명이 움직인다면 효과적일거라고 생각된다.

나. 효과적인 방역기술 전달과 실행

질병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기술이 농가에 제대로 전달되어 활용되는데 문제들도 있다. 회사마다 영업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표준화된 기술전달도 안된다. 교육기회는 많은데 도움이 되



는 교육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협회나 조합차원에서 통일된 교육시스템을 수립하고, 전국 곳곳에 빠짐없이 전달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면 한다.

▲ 돈사입구 소독조에서 신발을 소독하고 있는 모습

1년간 필요한 질병 관련

교육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수준별로 교육계획을 세분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 양돈교육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의 방법과 현장에서 직접 질병관리 모델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그러나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각각 하는 교육은 때에 따라서는 혼란스럽다는 것도 되 돌아 보았으면 한다.

3. 농가가 모든 질병관리, 방역 대책에 책임지고 하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질병으로 돼지가 죽으면 어차피 농가가 제일 큰 피해자이다. 답답한 것은 농가다. 그러나 농가차원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

가. 기본적인 차단방역 준수

출하차 기사에게 돈사에 들어와서 돼지 빼는 것을 도와달라는 사람, 지대사료 기사에게 사료를 돈사내에 쌓아달라는 사람, 돼지를 사와서 바로 기존돼지 옆에 대책없이 두는 사람 등... 이런 농가들의 경우 사정이야 있겠지만 기본적인 양돈가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

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료, 기자재, 차량, 사람, 돼지, 물 등에 대해서는 소독, 일정시간 격리, 차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한대로 한다. 시설이 부족하면 돈을 적게 들고고도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전문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알고도 그냥 넘어간다.

PED, PRRS, PMWS가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농장에 들어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부나 협회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사료회사, 조합, 협회 등으로 전화만 하면 된다.

나. 위생환경관리의 기본 준수

매일 소독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농장과 돈사입구에서 신발을 갈아신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눈에 안보이니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안보이니 대충한다. 30분 정도는 마르지 않을 정도로 1일 1회 충분한 양으로 소독을 하고, 질병을 옮기는 쥐를 비롯한 야생동물들도 철저히 정기적으로 구제해 보자.

죽은 돼지를 외부에 그대로 방치하는 농장도 있다. 돼지가 죽으면 왜 죽었는지를 검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 국가적인 차단방역이 야 정부가 잘 하고 있을 것이고, 다만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정부, 단체, 농장의 입장에서 두 가지씩만 이야기해 봤다. 2005년 올해에는 모두가 다시 한번 질병으로 고민하고, 질병으로 망하는 농장이 없도록 자신들의 역할을 감시하면서 했으면 한다.

돼지와 농가, 현장이 없으면 양돈업계에 종사하는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존재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양돈**